



보도자료 Press Release

2022년 2월 9일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총 2장

담당: 홍보실

전화: 02-3701-7338

이메일: communications@asaninst.org

정몽준 명예이사장, 키신저 박사를 기념하는 기금 기탁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은 국제정치학계의 석학(碩學)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 박사를 기념하는 기금을 기탁했다. 기금은 미국 워싱턴, D.C.의 CSIS(Center for Strategy & International Studies)에 50만불,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정치대학원(SAI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의 헨리 키신저 센터(Henry A. Kissinger Center for Global Affairs)에 50만불로 총 100만불이 제공되었다.

키신저 박사는 현실주의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국제정치학자로 닉슨 행정부에서 대통령 안보보좌관, 포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직을 역임하였다.

키신저 박사는 외교정책은 최악이 아닌 차악(次惡)의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데, 지도자들은 도덕성이 결여된 현실주의에 매몰되는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키신저 박사의 대표적인 업적은 냉전시대의 원활한 관리와 미중 관계 개선을 통한 냉전의 조기 종식이라고 할 수 있다. 키신저 박사는 1960년대 말 시작된 '데탕트'(détente)의 설계자였고, 그 분위기가 1970년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 외교를 이끌어 나갔으며, 미국과 소련이 핵군비경쟁에도 불구하고 오판에 의한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세기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있었지만, 1945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세계사에서 유례가 드문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6.25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테러와의 전쟁 등이 있었고, 1961년 쿠바 미사일 위기와 같은 일촉즉발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데탕트 하에서 미소간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과 같은 군비통제가 이루어졌으며, 1985년 레이건-고르바초프 대통령간 정상회담 성명에 포함된 "핵전쟁은 이길 수도 없고, 절대 싸워서 안된다"는 말에서 확인되었듯이, 세계는 극한 대결보다는 공존을 모색하는 안정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버팀목 역할을 한 미국의 공로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키신저 박사의 역할은 상당히 있었다고 보여진다.

하버드 대학원의 학생이었던 키신저 박사는 6.25전쟁중 1950년 한국을 방문하여 전쟁발발 과정을 분석하고 윌리엄 엘리엇(William Elliot) 대통령 정치고문과 폴 니츠(Paul Nitze) 국무부 정책국장에게 “미국의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의 보고서는 향후 공산주의 세력을 대응하는데 기초가 되었다.

현재의 세계질서에 대해 키신저 박사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스스로를 “떠오르는(rising)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국의 의견충돌은 대립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 지금의 미중 전략경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0년 아산정책연구원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정 명예이사장과 키신저 박사는 장시간에 걸쳐 대담을 나누었는데, 대담 내용은 정 명예이사장의 저서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와의 소통』에 담겨 있다. 정 명예이사장과 키신저 박사의 대담에서 키신저 박사는 “한미관계는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또 미국 국민들도 한국전쟁 당시 5만명이 넘는 미군이 한국에서 전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 한국은 미국의 방위공약을 믿어도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2015년 7월 키신저 박사는 정 명예이사장을 뉴욕 자택으로 초청하여 만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는 루퍼트 머독 뉴스코퍼레이션 회장,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캐런 하우스 전 월스트리트저널 편집인이 참석했다.

1923년생인 키신저 박사는 우리 나이로는 100세가 되었지만 학자로서의 열정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키신저 박사는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며, 인공지능을 관리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역사나 철학에 의존하지 않고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훨씬 큰 실수를 더 빨리 저지를 수도 있고, 인간의 지성이 쌓아온 문명의 역사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질서와 평화에 대한 키신저 박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키신저 박사의 세계 질서 유지에 대한 열정과 통찰력은 후학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다.

* **첨부:** 국제질서와 평화를 위한 키신저 박사의 기여와 업적

아산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이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